



自然公園과 野生鳥〈32〉

## 후투티

- 학명 *Upupa epops soturata*
- 영명 Hoopoe

후투티는 별나게 생긴 여름철새이다.

어린시절 이 새를 처음 봤을 때 우리 또래 아이들은 인디안 새라 불렀다.

케리쿠퍼가 황야를 누비며 종횡무진 인디안을 무찌르던 서부영화는 그 시대를 풍미하던 가장 큰 재미였었다.

소리없이 날아 인가 근처나 과수원, 농경지를 찾아다니며 땅에 앉아 먹이를 찾을 때 부채살같은 우관을 세우면 흡사 인디안 추장을 연상하게 하였던 것은 먼 나라의 환상

같은 서부영화가 문맹을 깨우친 잠재력인지 모른다.

수십년을 찾아다닌 무인도에서도 철새의 길목에서는 2월 하순에 이미 도래한다는 사실은 이 새가 여름철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온다는 입증이며 남부지방보다는 중부지방이 서식밀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고른 분포를 하고 있다.

또 내륙의 산촌을 생활근거지로 살아가는 내륙성 조류이고 인가 근처에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 번식도 인가에 의존을 하는데 오래된 기와집의 용마루 속이나 건물 틈, 벽돌 담장의 구멍 등등 다양한 번식생태를 가지고 있다. 드물게는 동네 어귀의 고목나무구멍에도 둥지를 틀기도 하는데 오디새라는 방언도 있다.

후투티의 둥지가 있는 근처는 대체로 어둡고 습한 곳이기 때문에 산좌로 간 형겅이나 깃털이 배설물에 젖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싫어하지만 우리네 인심이 이들을 양해로 수용하고 만다.

일찍 동남아시아 월동지에서 도래하므로 번식도 여느 여름철새들 보다 일찍하는데 4월달에 이미 산란을 시

작하여 한배에 6개 내외를 낳아 17~8일이면 부화하고 25일이면 둥지를 떠날 수 있다.

식성은 곤충의 유충을 주식으로 하는데 나무에 앉아 지내기 보다 주로 지상을 배회하는 것은 땅에 있는 먹이를 찾기 위함인데.

육추기의 주식물 중에 땅강아지가 5할을 넘는다는 사실은 환경의 열악에 따른 먹이사슬을 재음미할 때라 생각된다.

식성으로 본 후투티는 곤충의 유충이나 땅강아지같은 원시상태의 자연 환경에서만 먹이 생존이 가능하여 수 년내 변화가 올 것으로 믿는다.

시베리아, 중국,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폭넓게 분포하나 일본에는 오직 미조로서 기록만 있을 뿐 도래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의 문시 되는 새이다. ▲



글·사진 李正雨  
(삼육대학교수·동서조류연구소장)